

2011국내 첫 아트팩토리형 비엔날레 청주 개최

핀란드 페어 등 60여개국 150여명 초대 작가 참여



한범덕
청주시장(조직위원장)



김동관
청주비엔날레 사무총장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될 국내 첫 아트팩토리형 비엔날레가 충북 청주시 내덕동 소재 옛 청주연초제조창 대건물 청주문화산업 단지 일원에서 40일간에 걸쳐 열린다. 청주시 (시장 한범덕)가 주최하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한범덕, 사무총장 김동관)에서 주관하며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핀란드 대사관, 한국관광공사,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충북도, 충북도 교육청 후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는 2011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는 유용지물(有用之物)이라는 주제(공예와 함께하는 쓸모있는 이야기)로 열리며 핀란드 등 세계 60여개국에 국내외 작가 150여명이 참여한다. 세계 최대규모로 최고 수준의 공예비엔날레 수준으로 펼쳐진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대성황을 위해 KTX타고 구경으로도



오송역장과 업무협약을 하는가 하면 청주시와 지역출신 출향인사 50여명을 비엔날레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는 등 조직위원들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치밀한 행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 박희상)

녹색수도 청주

청주는 고대 철기문화의 발흥지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주조한 인쇄 및 정보혁명의 발흥지로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청주를 비롯한 중부권에 도요지, 한지마을, 공예촌 등 우리 고유의 삶과 멋을 계승하면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으며 세계적인 도자기브랜드회사인 한국도자기와 젠한국을 비롯한 현대화된 공예디자인산업이 자

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맥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청주시는 지난 1999년부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도자·목칠·금속·섬유·유리 등 현대의 공예 트렌드를 엿보고 세계공예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축제로, 세계 최대규모 최고수준의 공예분야 대표 비엔날레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청주를 생활공예의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감성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예는 인간의 손이 만들어 낸 가장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이며 인류 공통어입니다. 공예는 '아름다운 삶' 이자 생활미학이며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공예는 살아있는 과학이자 통섭이고 소통입니다. 공예는 맛있는 사랑이고 희망이며 우정이고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예는 삶이란 무대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녹색수도 청주에서 공예비에 날래와 함께하는 쓸모있는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경 畝 축



회장 이필우

사단법인 재경충북협회장 · 임명직부회장 8명 선임

“정관에 의해 임명된 저희 부회장 8명은 지난 1월22일 개최된 사단법인 충북협회의 정기총회를 계기로 재경충북협회의 모든 회원들이 대통합을 이루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충청북도의 지방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로 한데 대해 대환영을 보내며 이제 저희들도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면서 이필우 회장님을 위시하여 고문님들과 각 시군 향후회장 그리고 재경 전 회원들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며 서로 돕고 신뢰하면서 충북과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다짐

- 하나.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먼저 돕는 향우정신을 드높인다.
- 하나. 우리는 예절을 지키며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한다.
- 하나. 우리는 향토사랑에 앞장서고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행동한다.
- 하나. 우리는 후진을 키우고 장학하여 향토의 미래에 헌신한다.
- 하나. 우리는 중원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적극 참여한다.
- 하나. 우리는 고향 농산물을 애용하고 농촌발전에 술선수범 동참한다.

임명직 부회장

- 이재준 (李在俊) (無順)
- 민병일 (閔丙一)
- 신용식 (申龍植)
- 박희상 (朴喜祥)
- 정구종 (鄭求宗)
- 최창식 (崔昌植)
- 이상 (李相義)
- 이재수 (李在洙)